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2016년과 2021년 변화를 중심으로*

남정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이성호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이소정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과 학사과정)****

유현경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목표로 창업정책을 추진한 박근혜정부(2013-2017)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추진한 문재인정부(2017-2022)의 창업 정책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책 결과가 드러나는 각 정부의 후반기인 2016년과 2021년의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2016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데이터(GETR : Global Entrepreneurship Trend Report)를 기초로 하여 2021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종단연구 방법(Longitudinal Analysis) 중 하나인 추세조사(Trend Study)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세금적절성, 투자회수용이성, 기술이전용이성 등에 대한 인식개선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유형별 인식 차이에서 생계형 창업자들이 갖는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기회형창업에 비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창업유형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창업자 및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2016년과 2021년도 국내 창업환경 및 창업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창업자 입장에서 과거와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COVID-19로 인해 붕괴된 국내 생계형창업 및 소상공인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내 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의 질적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창업환경, 창업인식, 기회형창업, 생계형창업

1. 서론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정책의 방향을 산업지원형에서 혁신주도형으로 전환하면서, 국가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벤처 및 스타트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코트라, 2017).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기준 경제성장률은 -0.9%이며, 청년실업률은 2011년 7.6%에서 2020년 9%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0). 저성장 기조의 고착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인해 청년실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이슈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의 신기술이 혁신 경제의 핵심이 되고, COVID-19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뉴딜에서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의 중요성이 더

욱 커지고 있다.

2017년에 새로 들어선 문재인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규제혁신, 혁신 금융, 인재 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신설법인이 27,150개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20년간 신설법인 증가분의 43.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창업지원예산은 2016년 3,766억 원에서 2020년 8,492억 원으로 2배 이상 급성장하였다. 특히 혁신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반영하듯 기술 기반 창업은 최근 20.1%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a, 2021). 이처럼 문재인정부의 전방위적 창업지원 정책 추진으로 신생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며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예비 창업자 및 창업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1627)

** 제1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namjm@dankook.ac.kr

*** 제2저자, 단국대학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글로벌벤처창업학과 석사과정, lsh69041@gmail.com

**** 제3저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과 학사과정, leesjy2367@gmail.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happyhk1221@gmail.com

· 투고일: 2021-09-10 · 1차 수정일: 2021-11-05 · 2차 수정일: 2021-12-14 · 3차 수정일: 2021-12-23 · 게재확정일: 2021-12-24

다(남정민·이환수, 2019).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2021)의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차 생존율은 29.2%로 OECD국가(평균)의 5년차 생존율 40.7%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국내 창업 분야 투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창업성장률과 고성장 창업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다윈의 바다(Darwinian Sea)'를 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실업과 같은 고용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창업환경은 창업자의 태도 및 창업 성과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경제, 문화, 제도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또한 창업환경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목표로 벤처중소기업 육성 및 창의인재 개발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박근혜 정부(2013-2017)와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문재인정부(2017-2022)의 정책결과가 드러나는 후기 시점인 2016년(박근혜 정부)과 2021년(문재인 정부)의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 중심의 창업생태계연구에서 벗어나 종단연구방법(Longitudinal Analysis) 중 하나인 추세조사(경향조사, Trend Study)를 진행했다.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다른 대상자를 조사함으로써 창업자가 느끼는 창업환경의 변화를 확인하고 시간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대상 집단(창업가)의 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횡단연구는 일정 시점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광범위한 표본 집단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에 흐름에 따라 창업가들의 특성과 상황의 동태적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오혜미 외, 2021). 본 연구의 주제인 창업생태계는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종단연구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추적해서 인과관계를 확인한다면 창업 분야 연구의 깊이와 객관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2.1 창업환경(생태계)

창업환경은 창업기업과 이를 둘러싼 창업자, 대학, 지자체, 창업지원기관, 그리고 투자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환경이다(문미성, 2019). 창업환경은 창업가들의 창업의지 및 창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요소이며(Duane Ireland & Webb, 2007; Tamasy, 2006; 강개석·이종진, 2017), 환경요인은 창업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Naffziger et al., 1994). 창업환경은 창업자의 동기부여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며(정종식, 2017), 창업 및 창업 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김정심, 2011). 또한, 개인의 주변 환경요소에 대한 인지상태와 환경요소는 상호작용을 통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Arenius. & Minniti., 2005; 김진영, 2019). 만약 정부의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창업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된다면, 위험성이 높은 기회형창업 보다는 단기적이고 최소 생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는 생계형창업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창업의 질(quality)과 양(quantity)이 결정된다.

창업기업은 내·외부 경험 부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많아 기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규제, 글로벌 경제 등 경영환경에 민감하다(장영혜 외, 2019). 따라서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기존 기업과의 경쟁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창업환경은 창업기업의 생존과 성공, 혁신을 통한 국가성장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남정민·이환수, 2019).

창업생태계는 기회의 창출과 개발을 자극하는 상호 관련된 요인인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생태계로 구성되며, 고도화된 창업생태계 구축은 성공적인 벤처기업을 창출하고 기업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Meshram & Rawani, 2019; Audretsch & Belitski, 2017; Stam, 2015; 정행로·양동우, 2019). 특히, 국가차원에서 사회, 문화, 제도적으로 창업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창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은 창업가들이 창업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윤재, 2005). 창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새로운 창업가들이 창업을 결심하고, 창업 활동을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금융지원, 정부정책, 시장환경 등의 창업생태계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창업 성공의 핵심 요소이며,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창업 및 창업가에 대한 인식은 국가수준의 창업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창업환경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과 2021년도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환경에 주요 구성요소인 법률·제도적 환경, 시장환경, 금융환경, 창업 인프라, 창업문화를 중심으로 두 시점(2016년과 2021년) 간 실제 창업자의 인식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창업자의 시각에서 창업환경의 개선 정도를 살펴보고, 영역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기회형창업과 생계형창업 등 창업유형별 창업 인식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국가 창업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가설)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은 2016년과 2021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둘째, 기회형창업과 생계형창업 등 창업유형별로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표 1>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국가	창업 용이성	세금 적절성	정부 창업 지원 효과성	창업후 생존 용이성	독과점 담합 규제 효과	해외 진출 용이성	정부해 외진출 프로그램 도움 정도	투자 수혜 용이성	투자 회수 용이성	정부자금조달 용이성	창업 센터 입주 용이성	창업 센터 도움 정도	기술 이전 용이성	국가 사회 안전망 수준	창업 지원 인력 수준
중국	2.97	3.88	4.44	3.29	3.99	3.46	4.72	3.35	3.75	3.49	4.43	5.10	4.14	3.82	3.91
한국	3.86	3.65	3.90	3.41	3.37	3.48	3.72	3.15	3.13	3.19	4.23	4.88	4.04	3.30	3.18
일본	4.26	3.8	3.74	3.52	3.23	3.69	3.84	3.49	3.55	3.43	4.15	4.45	3.95	3.68	3.21
싱가폴	3.53	4.28	4.56	3.54	4.36	3.78	4.4	3.41	3.49	3.69	4.29	4.96	4.46	4.39	4.26
전체	3.49	3.92	4.27	3.41	3.86	3.63	4.38	3.33	3.49	3.46	4.34	5	4.25	3.83	3.75
F값	45.61	18.45	29.84	3.05	60.04	1.89	12.26	3.50	15.48	9.16	0.75	2.34	3.38	45.15	55.02
유의 확률	.000	.000	.000	.027	.000	.129	.000	.015	.000	.000	.520	.072	.018	.000	.000

출처: 남정민·이환수(2019),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비교 분석

2.2 국내 창업환경과 해외 창업환경 비교

주요국들은 혁신주도형 경제구축 및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코트라, 2017). 이러한 관점에서 창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데 국가별 특성과 환경, 정책지원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Reader & Watkins, 2006; Schildt, et al., 2006; Ucbasaran, et al., 2001; 남정민·이환수, 2019; 오지선·김영환, 2016; 김영환·양태용, 2013; 배종태 외, 2012; 배종태·차민석, 2009; 2005). 2016년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의 데이터(GETR)를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4개국 중 우리나라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하위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업의 세금적절성’, ‘투자수혜용이성’, ‘투자회수용이성’, ‘정부자금조달용이성’, ‘국가사회안전망수준’, ‘창업지원인력수준’ 등은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창업지원 효과성’, ‘창업 후 생존용이성’, ‘기술이전용이성’ 등은 중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남정민·이환수, 2019).

최근 창업환경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링, 이하 GEM)를 살펴보면, 창업생태계 제반여건에 대한 평가에서 이전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은 중상위권으로 상승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그러나 여전히 44개국 중 ‘대외협력수준’은 29위, ‘교육 및 훈련의 적절성’은 22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었으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인식 평가에서 43개국 중 ‘창업선호도’는 28위, ‘창업용이성’은 35위, ‘창업역량’은 33위, ‘창업기회’는 28위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표 2> 참고).

GEM 데이터에서 기업가적 금융, 정부 지원, 교육훈련, 연구개발 이전, 사업화 인프라 등은 국가별 전문가(NFS: National Expert Survey)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이다. 국가별로 창업 분

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Panel)에 의해 조사된 결과이기 때문에 창업환경에 대한 실제 창업자들의 인식과 평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표 2> 창업생태계 분야별 제반여건에 대한 평가

분야(내용)	년도(국가수)	'16년(65)	'20년(44)
시장의 역동성 (제품과 시장의 변화속도는 빠른 편인가?)	지수	7.13	7.9
	순위	1	1
정부 지원정책 적절성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정책이 적절한가?)	지수	5.93	6.2
	순위	1	5
정부 프로그램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은 충분하고 효과적인가?)	지수	5.31	5.8
	순위	11	13
물리적 허부구조 (인터넷, 교통, 공간 등의 물리적 서비스 제공은 양호한가?)	지수	6.73	7.8
	순위	28	6
재무적 환경 (정부와 민간의 금융지원 수준이 충분한가?)	지수	4.12	5.6
	순위	38	8
교육 및 훈련 (초중고)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적절하고 충분한가?)	지수	3.29	3.9
	순위	25	12
정부 규제 정책 적절성 (세금, 기타 정부 규제는 적절한가?)	지수	4.67	5.1
	순위	19	12
R&D 이전 (기술의 이전은 효율적이고 지원이 충분한가?)	지수	4.20	4.5
	순위	20	18
문화 및 사회 규범의 적절성 (기업가정신을 수용하거나 촉진하기에 적절한가?)	지수	4.91	5.2
	순위	31	18
시장 개방성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고 원활한가?)	지수	3.83	4.5
	순위	50	21
교육 및 훈련 (대학 이상) (기업가정신 관련 교육 및 훈련이 적절하고 충분한가?)	지수	4.02	4.6
	순위	53	22
대외 협력수준 (기업의 해외 전문가 확보 및 비용 부담은 양호한가?)	지수	4.35	4.8
	순위	54	29

출처 :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2021)

2.3 창업환경의 영향력

미국, 중국, 인도 등은 자국의 상황에 맞추어 글로벌 창업기업을 육성 및 유치하고 있으며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코트라, 2017).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전에 비해 국내 창업환경이 개선되었고, 창업생태계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9년 말 대비 벤처기업 전체

고용인원은 81만 7000명으로 국내 4대 그룹 고용인원 69만 8천여명보다 약 11만 9000여명 더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이처럼 잘 갖춰진 창업환경을 통해 창업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력을 갖추는 경우, 창업기업은 지역 및 사회,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기여를 한다. 또한 창업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주요 분야에서 민첩성을 보유하여 미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핵심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코트라, 2017). 영국의 런던 경영대학원과 미국의 Babson College, Kauffman재단 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중소기업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창업활동과 경제성장 간에 높은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검증되기도 하였다(최돈승 외, 2014; 이윤재, 2005; 2003). 또한 창업환경 인식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남정민·이환수(2019) 연구에서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긍정적 인식은 재창업의지, 창업만족도, 기회형창업수준 등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환경은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체계적인 창업환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2016년(박근혜 정부 후기)과 2021년(문재인 정부 후기)을 비교하여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회형창업자와 생계형창업자가 갖는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COVID-19로 인해 붕괴한 국내 생계형창업 및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3.1 자료수집

2016년도 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집한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21년도는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GETR) 데이터의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도, 2021년도 실제 창업가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응답자 중 ‘창업경험이 있거나 창업을 진행 중인 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본 수는 2021년도는 186명, 2016년도에는 425명으로 총 611명의 데이터가 표본에 포함되었다.

3.1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창업환경은 창업용이성, 세금적절성,

정부창업지원효과성, 창업후생존용이성, 독과점담합규제효과, 해외진출용이성, 정부해외진출프로그램도움정도, 투자수혜용이성, 투자회수용이성, 정부자금조달용이성, 창업센터입주용이성, 창업센터도움정도, 기술이전용이성, 국가사회안전망수준, 창업지원인력수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남정민·이환수, 2019). 각 항목은 7점에 가까울수록 긍정적인 값을 갖는 7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했으며 창업동기를 묻는 설문 문항에서는 기회형 창업에 가까울수록 7점에 가까운 점수를 갖는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t-test를 통한 연도별 집단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분석 대상의 특징

분석 대상의 특징은 아래 <표 3>과 같다. 2016년도 성별은 남성이(268명, 63.1%), 연령은 50대(171명, 40.2%),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274명, 64.5%)이 다수 차지했다. 2021년도의 성별 분포는 남성(122명, 65.6%)이 높고, 연령은 30대, 40대가 동일하게 높은 비중(56명, 30.1%)을 차지했으며,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93명, 50%)이 가장 많았다. 2016년 및 2021년 생계형창업은 309명(72.7%)과 55명(29.6%)이고, 기회형창업은 116명(27.3%)과 131명(70.4%)으로 나타났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년도	측정내용	인원(명)	퍼센트(%)	
2016	성별	여성	157	36.9
		남성	268	63.1
	연령	20대	27	6.4
		30대	70	16.5
		40대	128	30.1
		50대	171	40.2
		60대	29	6.8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이하	113	26.6
		대학교졸업	274	64.5
		대학원졸업	38	8.9
창업유형	기회형	116	27.3	
	생계형	309	72.7	
	전체	425	100	
2021	성별	여성	64	34.4
		남성	122	65.6
	연령	20대	44	41.4
		30대	56	30.1
		40대	56	30.1
		50대	25	13.4
		60대이상	5	2.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6.5
		대학교졸업	93	50
		대학원	81	43.5
창업유형	기회형	131	70.4	
	생계형	55	29.6	
	전체	186	100	

1) 생계형창업과 기회형창업의 구분은 2001년 GEM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기회형창업은 자율성, 도전, 수입기대 등과 같은 풀(pull)요인에 의해 시작되며, 생계형창업은 고용불만족, 직업적 제한, 실업 등과 같은 푸시(push)로 시작된다. 기회형창업은 자발적 요인측면이 강하며, 생계형창업은 비자발적인 요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된다(이윤숙 외, 2018; 황지영·남정민, 2019)

4.2 연구 가설의 검증

<표 4>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변화(2016년 vs 2021년)

구분	창업 용이성	세금 적절성	창업지 원프로 그램 도움	생존 용이성	정부 독과점 규제 효과성	해외 시장 진출 용이성	해외시 장진출 프로그램 도움	투자 수혜 용이성	투자금 회수 용이성	정부 지원금 조달 용이성	창업보 육센터 입주 용이성	창업보 육센터 입주도 움	기술 이전 용이성	사회 안전망 수준	창업 지원 인력 수준
2016(A)	4.15	3.65	3.90	3.41	3.37	3.48	3.72	3.15	3.13	3.19	4.23	4.88	4.04	3.30	3.18
2021(B)	4.47	3.45	5.37	3.65	3.63	3.48	4.05	3.32	3.12	4.26	4.35	5.10	3.69	3.73	3.48
인식차이 (B-A)	0.52	-0.20	1.47	0.24	0.26	0.00	0.33	0.17	-0.01	1.07	0.12	0.22	-0.35	0.43	0.30
유의 확률	.000 ***	.092	.000 ***	.040 *	.018 *	.988	.072	.162	.940	.000 ***	.571	.258	.056	.000 ***	.014 *

<표 5> 창업환경에 대한 기회형창업과 생계형창업 간 인식비교

구분	창업 용이성	세금 적절성	창업지 원프로 그램 도움	생존 용이성	정부 독과점 규제 효과성	해외 시장 진출 용이성	해외시 장진출 프로그램 도움	투자 수혜 용이성	투자금 회수 용이성	정부 지원금 조달 용이성	창업보 육센터 입주 용이성	창업보 육센터 입주도 움	기술 이전 용이성	사회 안전망 수준	창업 지원 인력 수준
2021 기회형 창업(A)	4.35	3.73	4.92	3.89	3.76	3.75	4.12	3.57	3.43	4.10	4.32	5.16	3.81	3.73	3.62
2021 생계형 창업(B)	3.74	3.45	3.81	3.08	3.13	3.15	3.62	2.80	2.75	3.00	4.27	4.98	4.04	3.12	2.93
차이(A-B)	0.61	0.28	1.11	0.81	0.63	0.6	0.5	0.77	0.68	1.1	0.05	0.18	-0.23	0.61	0.69
유의확률	.000 ***	.016 *	.000 ***	.000 ***	.000 ***	.016 *	.025	.000 ***	.000 ***	.000 ***	.843	.447	.304	.000 ***	.000 ***

4.2.1 국내 창업 및 창업자에 대한 인식변화

연도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비교 결과는 <표 6>와 같다. 창업에 대한 인식은 2016년 3.15점에 비해 2021년 3.47점으로 0.32점 상승했으며, 창업자에 대한 인식은 2016년 3.19점에 비해 2021년 3.51점으로 0.32점 더 높게 나왔다. 또한 t-test를 통해 연도별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진행하였는데, 두 항목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고 있었다.

<표 6> 창업 및 창업자에 대한 인식비교

구분	창업에 대한 인식	창업자에 대한 인식
2016 (A)	3.15	3.19
2021 (B)	3.47	3.51
인식차이 (B-A)	0.32	0.32
유의확률	.002**	.001**

4.2.2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변화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창업 용이성(0.52점 상승),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움정도(1.47점 상승), 생존 용이성(0.24점 상승), 정부독과점규제효과성(0.26점 상승), 정부지원금 조달용이성(1.07점 상승), 사회안전망수준(0.43점 상승), 창업지원 인력 수준(0.30점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표 4>).

그러나 세금적절성(0.20점 감소), 투자회수용이성(0.01점 감소), 기술이전용이성(0.35점 감소)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4.2.3 창업환경에 대한 기회형창업과 생계형창업의 인식비교

기회형창업자 대비 생계형창업자의 창업환경 인식비교 결과를 보면 기회형창업자는 생계형창업자에 비해 창업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창업 용이성(0.61점 높음), 창업지원프로그램 도움정도(1.11점 높음), 생존 용이성(0.81점 높음), 정부독과점 규제(0.63점 높음), 투자회수 용이성(0.77점 높음), 정부지원금 조달 용이성(1.1점 높음), 사회안전망수준(0.61점 높음), 창업인력 지원수준(0.69점 높음)에서 기회형창업자의 인식이 높게 나왔으며, 집단 간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회형창업자가 생계형창업자에 비해 창업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국내 창업환경은 기회형창업 중심의 창업지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21년도 기회형창업자의 인식은 2016년도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에 비해 기술이전용이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개선이 되었지만, 2021년도 생계형창업의 경우 창업보육센터 입주용이성, 창업보육센터입주도움정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2016년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V. 결론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창업가 및 창업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창업 환경에 대한 2016년과 2021년도 인식비교 그리고 기회형창업자와 생계형창업자가 인식하는 창업환경에 대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창업가 및 창업경험자 611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했으며, 연구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창업자가 느끼는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도 엔젤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 비용 확대, 해외 창업자 유치를 위한 창업 비자제도 확대, 공공구매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협업, BIG3 분야 창업·벤처 육성,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창업환경 변화에 맞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하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가고 있다. 2016년과 2021년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양적 및 질적 수준의 증가로 인해 창업자가 인식하는 국내 창업환경 수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한상공회의소(2021)의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국내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OECD국가의 5년차 생존율 40.7%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 국내 창업 관련 투자는 양적으로 대폭 성장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고민하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표 4>에서 세금적절성에 대한 항목의 점수 변화는 -0.20점으로 창업자들은 여전히 세금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21년 세법개정안 자료를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산업군은 신성장, 원천 기술에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 생계형창업이나 전통적인 산업의 창업자는 세제 혜택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시장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체계와 정부 부처별로 상이한 정책은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4>에서 2016년과 2021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을 보면 창업용이성, 창업지원프로그램도움, 정부지원금 조달용이성, 사회안전망수준 등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투자를 받거나 투자금 회수, 해외시장진출, 기술이전 등 창업과정에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거나 시장을 확대하는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입주도움은 2016년과 2021년 모두 높은 점수를, 투자금회수용이성은 모두 낮은 점수를 유지하기 때문에 두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투자금회수용이성, 기술이전용이성은 창업기업의 수익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 이 두 항목은 2016년과 2021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2021년에 오히려 소폭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사업구조의 개편과 일자리 창출이라면 창업, 투자, 성장, 회수 및 재창업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창업 업종별, 창업 단계별 발생하는 창업과정의 문제점을 세분화하여 정책수혜자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추가적으로 2016년도 아시아 주요국의 창업환경 인식 비교 연구(남정민·이환수, 2019)에 따르면, 정부독과점규제효과는 아시아 주요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비해 2021년도 정부의 독과점규제효과에 대한 창업자 인식은 개선되었지만 최근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시장독점 이슈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일례로 카카오(Kakao)의 경우 포털(Daum), 부동산(다음 부동산), 온라인쇼핑(카카오메이커스, 카카오톡쇼핑하기), 모바일 기프트쿠폰(카카오톡선물하기), 미용(카카오헤어샵)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카카오 계정 하나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상훈, 2021). 이러한 거대기업의 시장독점은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 스타트업은 시장에 진입할 때 거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대기업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차여경, 2019). 따라서 정부는 창업기업의 시장진입을 수월하게 하는 상생 경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시장독점에 대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업환경에 대한 기회형창업과 생계형창업의 인식 차이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환경에 대한 생계형창업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표 5>참고). <표 5>는 <표 4>를 기회형창업과 생계형창업으로 나누어 분석한 것으로 창업 유형에 따라 큰 온도 차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4>와 <표 5>의 항목을 비교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으며, 세금적절성, 해외시장진출용이성, 투자금수혜용이성, 투자금회수용이성은 기회형창업에서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창업하기 좋은 환경의 변화를 기회형창업에서만 체감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혁신 기술 창업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창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일반 분야의 창업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는 혁신 분야 중심의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계형창업은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전통 서비스업에 몰려있어 인구와 소비유통 구조의 변화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경제 구조에서 생계형창업의 비율이 높고 이들 역시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생계형창업에 대해서도 창업 진입단계부터, 성장, 회수, 재창업 등 창업 단계에 따른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기획재정부(2021)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생계형창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시행된다. 연 매출액 일정 금액 이하 생계형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

하고, 생계형창업의 기준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하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금액을 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연 매출 금액은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업종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편성된 ‘새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등의 예산 집행률은 각각 85.9%, 69.3%로 미집행 자금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이지혜, 2021).

COVID-19에 따른 관련 업종의 매출 감소를 보면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 2020).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지원금 산출의 매출기준이 이미 경제적 타격을 받은 2020년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 감소가 클수록 지원금이 적어지는 구조이다(이지혜, 2021).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예산도 2021년 691억 원으로 2020년에 비해 271억 원 늘었으나 폐업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자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지원 기준과 업종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김용언, 2021).

202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원 없는 나홀로 사장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21). COVID-19로 매출이 감소해도 임대료,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폐업을 선택하거나 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혁신을 이끄는 기술 창업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생계형창업 역시 생활 현장에서 창업자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고 있으므로 창업생태계의 일부분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부족한 해외시장진출용이성, 투자수혜용이성, 투자금회수용이성, 창업보육입주용이성 등에 대한 창업지원이 요구된다. 창업에 대한 보편성 및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업지원 관련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이 증대해야 한다. 창업보육입주도움이 창업보육입주용이성으로 연결되어 누구나 생활 속에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창업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창업의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국내 중심의 창업에서 벗어나 창업 시작단계부터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시장에 진입해야 한다.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우수 창업인재 유치를 위한 Inbound 정책과 Outbound 정책의 병행을 통해 다양한 산업군의 해외시장진출용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투자수혜용이성, 투자금회수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모태펀드의 매칭 형태의 안정적인 민간 VC투자성향에서 벗어나 선도·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후기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성화를 통해 IPO에 집중된 창업기업 EXIT 생태계에서 M&A 방식의 출구전략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대기업 CVC 활동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및 부정적 인식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김영환, 2021).

5.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2016년 GETR 자료를 기초로 국내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자의 인식을 2021년 추가 수집하여 비교연구 하였다. 2016년 연구는 횡단적 연구(cross-sectional research)를 통해 국내 창업환경의 국제적 수준을 파악했다면, 본 연구는 2016년 대비 변화된 창업환경의 현주소를 분석함으로써 창업정책의 변화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창업생태계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규범 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며 변화한다. 따라서 창업생태계에 대한 창업기업 및 창업자들의 변화를 패널데이터(panel data)로 구축함으로써 창업환경과 창업기업, 창업자들의 상호관계가 횡단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로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생계형창업과 기회형창업 등 창업유형별로 패널을 구축한다면 창업 수준과 형태에 따른 정책 개발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연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 및 사회, 국가 수준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요구되며, 창업환경 및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공개함으로써 창업 연구의 질적 제고 및 창업 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진로 및 학습, 인적자원개발 등을 중심으로 축적되고 있는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청년 패널 조사, 인적자원기업패널조사와 같이 창업기업 및 창업자의 패널데이터 구축 방안에 대해 학계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며, 이를 통해 창업 연구와 정책의 높은 도약을 기대하는 바이다.

REFERENCE

- 강개석·이종진(2017). 창업지원제도를 포함한 창업환경이 창업활동 및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영향: GEM(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2, 215-237.
- 기획재정부(2021). 세법개정안 상세본.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5595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 김영환(2021).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안.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서울: 한국경영회
- 김영환·양태용(2013). 기업가정신 전문 유명 국제학술지 논문 검토를 통한 기업가정신 연구 동향 분석. *중소기업연구*, 35(3), 347-376
- 김용언(2021.08.27.). ‘집합금지 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국감 쟁점 주목. *세계일보*, Retrieved from <https://news.v.daum.net/v/20210827200131127>
- 김정심(2011). *예비소상공인들의 개인적 환경 및 창업교육이 미래*

-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 김진영(2019). 기업가정신 생태계에 대한 인식과 세분집단별 창업의도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14(2), 21-40.
- 남정민·이환수(2019).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비교분석. *벤처경영연구*, 22(3), 51-63.
- 대한상공회의소(2021).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연구*. Retrieved (2021.10.31.) from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3572&CHAM_CD=B001.
- 문미성(2019).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대안적인 공간전략. *국토* 456호, 6-10.
- 배종태·차민석·김영환·이정우(2012). Entrepreneurial career stage models: Case studies of successful role model entrepreneurs. *경영학연구*, 41(1), 89-109.
- 배종태·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109-128.
- 배종태·차민석(2005). 기업가정신과 벤처경영 부문의 연구동향: 한국과 미국의 학술지 비교분석(1998~2004). *벤처경영연구*, 8(3), 57-94.
- 오지선·김영환(2016). 한국 기혼여성창업가의 경영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가정과 일 병행전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8(4), 27-52.
- 오혜미·이채원·김진수(2021). 창업기업의 혁신지향성이 성장열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6(5), 1-14.
- 이상훈(2021.08.10). '카툰 하나로 한국 사회 장악.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에 독점 횡포 우려. 한국경제신문, Retrieved from <http://kpenews.com/View.aspx?No=1997461>.
- 이윤숙·이상준·신호정(2018). 기업가의 창업동기와 고용창출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시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7(4), 783-805.
- 이윤재(2003). 기업가정신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GEM 가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25(3), 105-127.
- 이윤재(2005).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가?. *산업경제연구*, 18(2), 653-672.
- 이지혜(2021.07.14). *허점 많은 '소상공인 지원'...추경하면 뭐하나 다 못쓰는데*. 한겨레 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3516.html.
- 장영혜·장인성·김판수(2019).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환경인식, 그리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정도가 경영성파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4(5), 115-125.
- 정종식(2017). *창업환경과 개인특성이 창업실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상황과 고용안정성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글로벌창업대학원.
- 정행로·양동우(2019). 모바일 소셜커머스 특성이 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창업학회지*, 14(5), 57-88.
- 중소기업중앙회(2020). *코로나19 위기대응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 중소벤처기업부a(2021).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서울: 중소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b(2021).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조사 결과*. 서울: 중소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c(2021). *2021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 서울: 중소기업부
- 차여경(2019.08.16). '덩치 싸움' 된 모빌리티...스타트업들 "혁신 아닌 자금력 경쟁" 우려. 시사저널e, Retrieved from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90>.
- 최돈승·고성은·강호상(2014). 창업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스템의 발전단계에 따른 국가 간 비교분석. *국제경영연구*, 25(2), 35-55.
- 코트라(2017). *글로벌혁신창업과 일자리창출: 주요국 사례와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코트라, 17-015
-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Retrieved(2021.10.31)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통계청(2021). *2021년 9월 고용동향*. Retrieved(2021.10.31)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황지영·남정민(2019). 한국, 일본, 싱가포르 시니어 창업가의 기회형창업수준이 창업성파에 미치는 효과: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조절효과. *한국창업학회지*, 14(6), 271-293.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Audretsch, D. B., & Belitski, M.(2017). Entrepreneurial ecosystems in cities: establishing the framework conditions. *The Journal of Technology Transfer*, 42(5), 1030-1051.
- Bae, J. T., & Cha, M. S.(2005). Recent Trend in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Management Research: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Journals (1998-2004). *JSBI*, 22(3), 57-94.
- Bae, J. T., & Cha, M. S.(2009). Expanding and Revitalizing Entrepreneurship in Korea. *Kasbs.*, 31(1), 109-128.
- Bae, J. T., Cha, M. S., Kim, Y. H., & Lee, J. W.(2012). Entrepreneurial Career Stage Models: Case Studies of Successful Role Model Entrepreneurs. *Korea Business Review*. 41(1), 89-109.
- Cha, Y. K.(2019.08.16). *Mobility-start-ups that have become "bigger fights" are concerned about "competition for financial power, not innovation."*. Journal of current affairs Economy, Retrieved from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790>, sisajournal-e.
- Choi, D. S., Go, S. E., & Gang, H. S.(2014).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Activity on Economic Growth: A Cross Country Analysis by the Level of Financial System. *International Business Journal*, 25(2), 35-55.
- Duane Ireland, R., & Webb, J. W.(2007). A cross-disciplinary exploration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Journal of management*, 33(6), 891-927.
- Hwang, J. Y., & Nam, J. M.(2019).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Opportunity Level of Senior Entrepreneurs on Business Performance in Korea, Japan and Singapore: Moderating Effect of the Government Entrepreneurship Support Program.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4(6), 271-293.
- Jang, Y. H., Jang, I. S., & Kim, P. S.(2019).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Participation in Government Start-up Support Project on Business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115-125.
- Jung, H. R., & Yang, D. W.(2019). An Empirical Study on

-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Social Commerce on Use Intention. *JKES*, 14(5), 57-88.
- Jung, J. S.(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s'Environment Factor and Entrepreneurs'Personal Characteristic to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Business Conditions and Perceived Job Security*.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Seoul.
- Kang, G. S., & Lee, J. K.(2017).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Including Entrepreneur Support System on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Job Creation: Based on GEM Data. *The Korea Entrepreneurship Society*, 12, 215-237.
- KBIZ(2020). *Survey on the Management Status of Small Businesses and Small Businesses Responding to the COVID-19 Crisis, Seoul: Seoul Regional Headquarters of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eoul: KBIZ.
- Kim, J. S.(2011). *A Study of the Impact of Individual Environment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f Preliminary Small Business Creatorson Future Business Creation Intent*.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 Entrepreneurial Management, Chung-Ang University.
- Kim, J. Y.(2019). Clustering of Individual Perceptions of An Entrepreneurial Ecosystem and Correspond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JKES*, 14(2), 21-40.
- Kim, Y. E.(2021.08.27). *pays attention to the issue of parliamentary inspection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who closed their businesses*. Segye Ilbo, Retrieved from <https://news.v.daum.net/v/20210827200131127>.
- Kim, Y. H.(2021). *Development of Korea's Start-up Ecosystem through Benchmarking of Foreign Countries*. Seoul: Korea Business Review.
- Kim, Y. H., & Yang, T. Y.(2013). Researching Entrepreneurship over the Last Decade: A Challenge for the 21st Centur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5(3), 347-376.
- Kocham(2021). *A Study on Policy Proposal for the Creation of a Dynamic Startup Ecosystem*. Retrieved(2021.10.31) from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3572&CHAM_CD=B001.
- KOTRA(2017). *Global innovation start-ups and job creation: Focusing on cases and surveys in major countries*. KOTRA, 17-015.
- Lee, J. H.(2021.07.14.). *"Applica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with a lot of loopholes...I can't write anything if I add extra budget*. Hankyoreh.
- Lee, S. H.(2021.08.10). *Taking control of Korean society with just one "Kakao Talk"...Kakao is worried about the monopoly tyranny due to the expansion of octopus*. kpenews.
- Lee, Y. J.(2003). Revisited GEM Hypothesis=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Entrepreneurship and Economic Growth.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25(3), 105-127.
- Lee, Y. J.(2005). Has Entrepreneurial Activities Promoted Growth?: Theory and Evidence from Cross-country Analysi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18(2), 653-672.
- Lee, Y. S., Lee, S. J., & Shin, H. J.(2018). An Investigation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and Job Creation by New Business Establishments in Seoul. *Korea Business Review*. 47(4), 783-805.
- Meshram, S. A., & Rawani, A. M.(2019).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ecosyste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Ecolog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JSESD)*, 10(3), 103-115.
- MOEF(2021). *A detailed version of the tax law amendment*. Retrieved from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5595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28
- MSSa(2021). *Analysis of changes in the ecosystem of start-ups in Korea*. Seoul: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SSb(2021). *As a result of the 2020 Global Entrepreneurship Study*. Seoul: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SSc(2021). *Results of the 2021 Venture Business Survey*. Seoul: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un, M. S.(2019). Changes in the startup ecosystem and alternative spatial strategies. *KRIHS Monthly Magazine* 456, 6-10.
- Naffziger, D. W., Hornsby, J. S., & Kuratko, D. F.(1994). A proposed research model of entrepreneurial motiv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29-42.
- Nam, J. M., & Lee, H. S.(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the Attitude of Entrepreneurs by Asian Countries: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Japan, Korea, and Singapore. *JSBI*, 22(3), 51-63.
- Oh, H. M., Lee, C. W., & Kim, J. S.(2021). A Study on the Effect of Startup's Innovation Orientation on Growth Aspiration.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16(5), 1-14.
- Oh, J. S., & Kim, Y. H.(2016). The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Style of Korean Married Women Entrepreneurs: Based on the Work-Life Balance Strategy.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8(4), 27-52.
- Reader, D., & Watkins, D.(2006). The social and collaborative nature of entrepreneurship scholarship: A co-citation and perceptual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3), 417-441.
- Schildt, H. A., Zahra, S. A., & Sillanpää, A.(2006). Scholarly communities in entrepreneurship research: A co-citation analysi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3), 399-415.
- Stam, E.(2015).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regional policy: a sympathetic critique. *European Planning Studies*, 23(9), 1759-1769.
- Statistics Korea(2020).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KOSTAT.
- Statistics Korea(2021). *September 2021 Employment Trends*. Retrieved from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KOSTAT.

- Tamasy, C.(2006). Determinants of regional entrepreneurship dynamics in contemporary Germany: A conceptual and empirical analysis. *Regional studies*, 40(4), 365-384.
- Ucbasaran, D., Westhead, P., & Wright, M.(2001). The focus of entrepreneurial research: contextual and process issue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5(4), 57-80.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and Start-up Perception: Focusing on the changes in 2016 and 2021*

Jung-Min, Nam**

Sung-Ho, Lee***

So-Jung, Lee****

Hyun-Kyung, You*****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sults of start-up policies of the previous government (2013-2017) and the current government (2017-2022). We would like to compare the perceptions of founders on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in 2016 and 2021. Based on the data (GETR) that surveyed the perception of the startup environment in 2016, a trend surve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perception of the start-up environment of founders in 2021.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under's perception of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changed positively overall,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perception of 'tax adequacy', 'easy to recover investment', and 'easy to transfer technology'. In addition, the perception of the start-up environment of livelihood founders was negative compared to opportunity-type start-ups. As such, different results were found for each type of start-up.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past and present start-up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ounder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domestic start-up environment by seeking support measures for livelihood-type start-ups that have collapsed due to COVID-19.

KeyWords: Start-up environment, Start-up perception, opportunity-type start-ups, livelihood-type start-up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2A03041627)

**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

*** Second Author, Master's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lsh69041@gmail.com

**** Third Author, Bachelor's Course,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leesjy2367@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Global Entrepreneurship, Dankook University, happyhk1221@gmail.com